요약판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결혼과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짧게. 명쾌하게. 유익하게.
HANS-JÖRG RONSDORF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약판

결혼과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짧게. 명쾌하게. 유익하게.

Hans-Jörg Ronsdorf

독일어판 페이퍼백은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80유로이며 배송료는 별도입니다.

독일어판은 Kindle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4판, 2026년 11월 (독일어판)

독일어에서 번역, 2026년 –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Albis 6½, 87477 Sulzberg

조판: Hans-Jörg Ronsdorf

연락처 이메일: hj-ronsdorf@t-online.de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6-5

표지 디자인: 토비아스 슈트리커(Tobias Stricker)

교정: 가브리엘레 징어(Gabriele Singer)

인쇄: www.wir-machen-druck.de

독일어판에서 달리 밝히지 않는 한 사용한 성경 번역본:

엘버펠트 성경(Elberfelder Übersetzung, 독일어 성경 번역본), Edition CSV, Hückeswagen www.csv-bibel.de

이 한국어 번역에서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의 어조를 따르되, 저자가 인용한 독일어 성경의 표현에 맞추어 옮겼습니다.

차례

1 머리말 – 왜 또 한 권의 책인가? **6**

2 우리의 기초 –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8**

3 처음으로 돌아가서 –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10**

4 창조 질서 – 그렇다면 어떤 질서인가? **14**

5 다가올 일 –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 일 **16**

6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여성들 **21**
6.1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21**
6.2 예수님의 발치에서 – 마르다와 마리아 **22**
6.3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23**

7 신부인 교회와 여성들의 섬김 **24**
7.1 바울과 그의 여성 동역자들 **24**
7.1.1 뵈뵈 – 여성 집사, 지도자, 편지를 전한 사람 25
7.1.2 본이 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25
7.1.3 유니아 – 존경받는 여사도 26

8 자매들에게 침묵 명령이 있는가? **27**
8.1 예언을 분별하는 일 **28**
8.2 34절과 35절은 인용인가? **29**
8.3 34절과 35절은 나중에 끼워 넣은 것인가? **29**

9 자매들에게 가르침 금지가 있는가? **32**

10 만인 제사장직 **36**

11 자매들이 여성 장로가 될 수 있는가? **38**

12 머리 덮개 – 오늘도 필요한가? **41**

13 머리인 남자 – 일방적인 복종인가? **46**

14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49**

15 우리의 죄 고백 **52**

16 맺으며 **54**

17 저자의 다른 책들 **58**

1 머리말 – 왜 또 한 권의 책인가?

2020년 11월에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몰이해와 분노까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형제들은 이 제목 때문에 일종의 인질이 된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여성관이 성경에 맞는다면, 왜 그들이 용서를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도 문제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 아래에 있는 비교표도 보십시오.

> 한 입장은 머리인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창조 질서가 이미 타락 이전부터 그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배에서 잠잠하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지 않습니다.
>
>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창조의 처음부터 평등과 상호 보완 속에 있는 동반자 관계를 봅니다 – 위계의 차이는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는 피차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자매들은 형제들과 똑같이 모든 영역에서 섬깁니다.

두 입장 모두 성경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 두 세계관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책을 연구하고 강연을 듣고 수많은 토론을 거친 뒤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탄식할 일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신학적 논쟁이 놓여 있고, 이 논쟁은 안타깝게도 교회들을 갈라놓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사실에 근거하여, 더 평화롭게 논쟁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작은 책에서 저는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제가 쉰네 살이 될 때까지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두 번째 입장으로 옮겨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자세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많은 자매에게 그 책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오랫동안 바라 온 해방이었고, 마음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반응들은 저를 기쁨의 눈물로, 그러나 슬픔의 눈물로도 울게 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자신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여기는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에 따라 예배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일을 맡는 것을 금합니다. 많은 자매가 이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많은 자매가 이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것에 대해 잠잠히 있습니다.

그사이 제 책은 어느 정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책을 읽기를 거부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고,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향되어 있고, 너무 페미니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짧고 쉽게 쓴 책을 내놓습니다. 더 많고 폭넓은 자료는 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hans-joerg-ronsdorf.de**.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다고 확신하더라도, 저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저도 제 양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에 관한 문제이며,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Hans-Jörg Ronsdorf, Sulzberg, 2026년 11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위계적 관점: 복종, 권위, 머리: 위계 중심	**위계 없는 상호 보완: 갈라디아서 3:28 –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 은사 중심**
창조 질서의 위계: 남자가 여자 위에 있습니다. 가치는 같지만 권리는 같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며, 서로 보완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창세기 3:16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를 타락의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규정이나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3:16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나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난 타락의 슬픈 결과를 묘사합니다.
하와가 속았으므로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고의로 죄를 지었고, 하와는 미혹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금지는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복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합니다. 가르침에 관한 일이라면 자기 집에서도 남편 앞에서 조용히 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언합니다. 요엘 2:28-29; 사도행전 2:17
머리 됨은 남자의 권위를 뜻합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 됨과 서로 의존함을 강조합니다.
여자는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피차 복종, 서로에 대한 소유와 권위, 고린도전서 7:4
남자만 지도할 수 있으며 장로와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성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28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구원 안에서의 영적인 평등만을 뜻하며, 창조 질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28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를 묘사하며, 이 새 창조는 교회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회적, 신분적, 성별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 우리의 기초 –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곧 그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대로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하고 믿을 만한 원천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검증해야 합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든 비교적 새로운 전통이든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 –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진리 – 와 그리스도교 전통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일이 흔합니다. 전통은 잘못된 성경 이해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맞추는 것도 똑같이 사람을 잘못 이끕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확신과 관습이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것들은 지나간 몇 세기, 아니면 겨우 몇십 년 전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성경으로는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의견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성경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성경의 주제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없는 주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적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제에도, 그리고 다른 모든 주제에도 중요한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지시는 오늘의 교회 생활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씀이 어느 시대 안에서, 어느 시대를 위해 효력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교회 생활을 위한 어떤 지시가 분명하고 명확하며 여러 번 나오는가? 그렇다면 규범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운 본문, 특히 그 핵심 내용이 신약에 단 한 번만 나오고 성경에 충실한 많은 신학자와 해석자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본문을 누구에게나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문맥이 결정적이다. 문맥에서 떼어 낸 말씀은 무엇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글을 읽을 때에도 이 규칙을 지킵니다. 이때 바로 앞뒤의

문맥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해석이 성경 전체의 그림에도 들어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이 기록된 시간과 장소에 관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신적인 능력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신약의 거의 모든 편지는 각 교회에 일어난 긴급한 일 때문에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 계기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낱말이 원어에서 무엇을 뜻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늘날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우리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번역은 언제나 어느 정도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번역자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번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또는 글자 그대로**, 다른 것은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창조 이야기의 일부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3 처음으로 돌아가서 –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남자 됨과 여자 됨,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창조 이야기로 갑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를 줍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의 문제 많은 폐단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때 여러 번 이 처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창조 기사를 때로는 일반적으로, 그러나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바울의 말만으로 이 창조 기사를 해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도 에덴동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가 봅시다. 엘버펠트 성경(Elberfelder, 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본문을 옮깁니다:

> 창세기 1:26-28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먼저 동물들이 지음 받은 뒤에 사람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입니다. 두 성이 한 호흡에 함께 불립니다. 둘 다 각자 따로, 그러나 또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서열이 없습니다. 위계가 없습니다. 둘이 함께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 세계를 보살피며 관리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일에는 두 성이 다 필요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세상은 아직 질서가 잡혀 있고,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람이 창조되는 사건 속으로 확대해서 들어갑니다. 구약, 곧 히브리 성경의 이 아주 오래된 본문들은 참으로 신비로우며, 오늘의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이 문자적인 뜻이고 무엇이 비유적인 뜻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이 기사를 다르게, 또는 더 자세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앞뒤가 맞으며 또한 깊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나중의 모세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창세기 2:18-20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맞는 돕는 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을 위하여서는 그에게 맞는 돕는 이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담은 혼자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어떤 동물도 그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 순간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는 짐승도 아니고, 충실한 친구인 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정신과 마음을 나눌 벗이 필요합니다. 마주 보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끝내시려고 두 번째 아담을 지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에게 맞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힘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은 종이나 조수가 아닙니다. 그런 이도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는 그에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는 그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주 보는 상대,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똑같이 강한 인격입니다.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면에 짝이 되고 보완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 받은 것은 그가 머리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가 먼저 지음 받은 것은 혼자 있음을 겪고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맞는 돕는 이를 만나 함께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자의 창조를 묘사하는 다음 본문은 신비롭지만, 또한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 창세기 2:21-22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첫 여자를 빚으십니다. 번역에 관한 한 가지 설명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여기서 “entschlief”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원히 잠들다’, 곧 죽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잠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그의 몸의 한쪽 옆구리입니다.

이 몇 마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자는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그에게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졌고, 그다음에는 여자로서 – 비유적으로 말하면 – 그 옆구리를 다시 채웁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진 것은 그의 곁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아래가 아니고, 그의 위도 아닙니다. 아담을 온전하게 하는 보완으로서, 그리고 삶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분명히 그녀 자신도 온전하게 하는 보완으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동등한 돕는 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 그의 옆구리에서 그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지음 받지 않은 것은, 그랬다면 서로 의존함과 하나 됨과 한 몸이 됨이 이런 의미와 깊이를 지닐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신부를 신랑에게 이끌어 오시는 그 순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창세기 2:23-25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Männin)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이 사람 앞에서 감격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마침내 나와 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녀는 그와 같지만, 그의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ish, 여자는 ishshah이고, 독일어로는 Mann에서 나온 Männin입니다. 그는 너무나 사로잡혀서, 앞으로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합하려고 자기 집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로 갑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배타적인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혼인 언약 안에서의 부부 공동체입니다. 가장 좋은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로서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동반자 관계 안에서입니다. 이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는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그녀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어 그를 만납니다. 어쩌면 키로는 아닐지 몰라도, 인격으로서의 본질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알아 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타락 이전의 흠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만납니다.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얼마나 오래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꽤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4 창조 질서 – 그렇다면 어떤 질서인가?

이제 창조 질서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살펴볼 때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 자리, 곧 낙원에서입니다. 아직 죄가 일어나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직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자매와 형제가 이 개념을 마치 다음과 같은 뜻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으므로 그가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 큰 책임을 진다. 하와는 그를 돕는 이로, 그를 위해 있도록 지음 받았다. 여기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신약도 일곱 번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위에 있는 머리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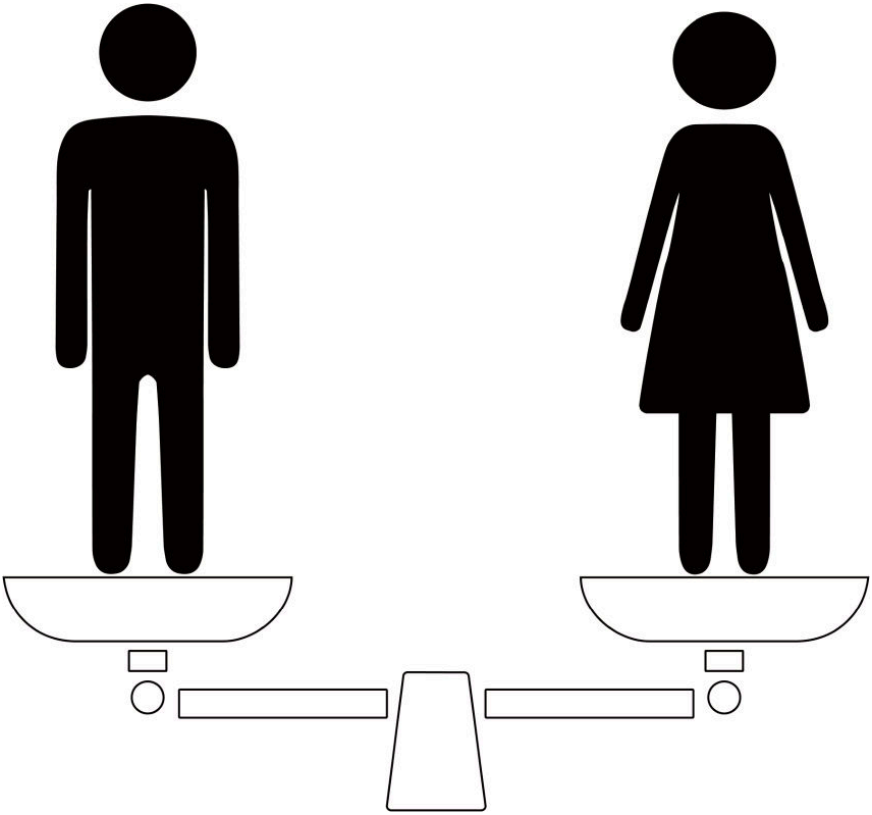
이 견해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창조 사건에 대한 이런 해석은 신약의 몇 안 되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독자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본문만 살펴본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담의 지도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와의 복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들에는 위계도, 복종도, 지도와 권위도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 질서로서의 여자의 복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위계적 등급이나 지위나 역할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안으로 읽어 넣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조 질서를 지지합니다. 곧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를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창조 **질서**를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타락의 날부터 그것은 **창조의 '무' 질서입니다. 이 무질서를** 우리는 본받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과 능력 안에서 맞서야 합니다.

애초에 "창조 질서"라는 개념은 아껴서, 쓰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이 개념은 결국 우리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붙잡아 굳혀 버리려 합니다.



5 다가올 일 –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 일

이제 이른바 타락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뱀이 하와를 꾀어 그 열매를 따게 하고, 하와는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며,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먼저 말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행동들에서, 여자가 더 쉽게 미혹되며 여기서 제멋대로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이미 유대인들도, 교부들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또는 이와 비슷하게 해석해 왔고, 그것을 여자라는 존재 전체에 적용해 왔습니다.

제 관심은 무엇보다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에 있지만,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전하는 본문 전체를 옮깁니다:

> 창세기 3:4-6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를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2:17). 그러니 하와는 아마 그것을 그에게서만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하는 뱀이 그녀를 꾀는 데 성공합니다. 분명히 아담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는 늦어도 이때에는 끼어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와가 약해져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듯이, 아담도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하와에게서 금지된 열매를 받으니 그만큼 약합니다. 둘 다 잘못 행동하고, 둘 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며, 죄를 짓습니다. 하와는 미혹을 받는 반면, 아담은 미혹이나 속임도 없이 알면서 하나님의 금지를 거슬러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 부부와 뱀을 만나십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일에 대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십니다. 많은 것을 말해 주는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음 순서로 당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 아담 – 하와 – 뱀 – 하와 – 아담.

> 창세기 3:13-15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은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그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 일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비참하고 비겁한 일입니다.[1]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까지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자를 선물로 주셨고, 그는 그 여자 때문에 그토록 행복해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가 아니라 그가 그 계명을 직접 들어 알고 있었고, 그는 하와에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기를 막지 않은 아담도, 하나님도 탓하지 않고 뱀을 탓합니다. 그녀는 뱀과 거리를 둡니다. 그 치명적인 상황에서 그것만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 원수에 맞서는 자리에 섭니다. 이 대화에서 자기 아내 편에 서지 않는 아담과는 다릅니다.

뱀은 이 속임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고 땅바닥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하와는 악을 일으킨 장본인을 분명히 지목하고, 그 범위를 그때에는 아직 알아볼 수 없었던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녀의 후손,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입니다.

이제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닥칠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엘버펠트 성경보다 더 분명한 취리히 성경(Zürcher Bibel,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인용합니다:

> 창세기 3: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네 임신을 많게 하리니, 너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
> 너는 네 남편을 원할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뱀은 저주를 받지만,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저주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형벌의 말씀은 뜻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반드시 (1) 들에서 하는 네 고된 일과 (2) 네 임신을 크게 더하리라.
>
> 너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
> 네 [사랑의] 갈망은 네 남편을 향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반역적으로 다스리며] 너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1. 아담은 하와를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허를 찔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수고는 농사일입니다. 하와는 저주받은 땅 때문에 아담과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저주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립니다.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의 임신을 많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뱀을 죽일 후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은혜가 빛을 발하고, 미혹을 받았는데도 중심에 서서 소망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로 해산할 때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시려고 여자의 몸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수고는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농사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와 남편의 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가 봅시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은 여자에게 고난과 억압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며, 남자들은 그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남자의 죄 많고 타락한 뜻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참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켜야 할 창조 질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질서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좋은 질서가 여기서 뒤틀리고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자의 복종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하와와 뱀 사이에 원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공격하는 자였습니다. 뱀은 남자의 지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로 여자를 차별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여자에게서 뱀을 이길 자가 나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자를 공격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목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다스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그 다스림을 혼자 움켜쥐고, 더 약한 성인 여자를 예속시켜 자기를 섬기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에덴의 동쪽에서 여자가 겪은 슬픈 운명을 대체로 잘 묘사합니다. 몇 안 되는 예외는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힘이 되어 주며, 평등하고, 동등한 이들 사이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마주 보는 상대를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여기던 처음의 관계가, 무섭도록 무질서하고 감정적으로 불평등하며 힘에 기초한, 흔히 사랑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자는 남편과 그의 애정과 신뢰와 보호를 갈망하겠지만, 그는 그녀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단절이요 뒤집힘입니다.

이 성의 싸움은 이후로 모든 민족의 모든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싸움을 일으킨 악을 뿌리째 붙잡을 때에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담에게 하신 형벌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둡고, 결국은 그와 함께 삶과 생존의 싸움을 나누는 여자에게도 해당됩니다:

> 창세기 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하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니라
>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와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는 오히려 피해자였고 그는 가해자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에게 돕는 이로 주어진 여자의 자손이 앞날에도 그를 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후손(예수 그리스도)이 부활 때에 그를 흙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아담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일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말입니다.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고난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부당하게 행사되는 우월함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곧 “너는 네 남편을 원할 것이요,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창 3:16)는, 우리의 죄 많은 인간 상태에서 남자가 자기를 향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갈망을 이용하여 그녀를 지배하고 예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예속은 참으로 남자의 타락한 본성의 증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타락의 결과를 이기는 것을 뜻한다면, 이 깨어진 관계와 여자의 예속과 착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그녀를 해방하시고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Hans-Jörg Ronsdorf 10.4.2021

6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여성들

타락의 결과를 이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와 그리스-로마 사회 속에서 그분이 여자들을 대하시고 만나신 방식이 참으로 여자들에게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런 남자는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 주시려고 육신을 입은 남자로 오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잔소리 없이 꾸짖으시고 깔보지 않고 칭찬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은 여자들의 질문과 어려움과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을 대하셨고, 그들의 여성됨을 한 번도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던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여자는 하찮은 일로도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내보낼 수 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된 운명을 짊어졌습니다. 여성 해방과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사는 서구 세계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메시아께서는 하와의 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여자의 위계적 복종을 가리키는 어떤 암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결혼 안에서, 사회에서 말하기나 지도하기나 가르치기를 금하는 어떤 암시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한 여자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낳았습니다. 많은 여자가 열두 제자처럼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가는 그분의 가장 힘든 길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도망한 뒤에도 그들은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가장 먼저 한 여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빈 무덤에 간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법적인 의미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차별을 그냥 없애 버리십니다.

지면 관계상, 예수께서 만나신 많은 여자 가운데 세 사람만 살펴보면서 위에서 말한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6.1 야곱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도 물을 길으러 오지 않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그때에만 그녀는 우물에 나올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녀를 만나시려고 그분은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다섯 남자에게서 버림받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넘겨지며 망가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여섯째 남자에게 몸을 맡겨야 했고, 무너진 평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남자는 공개적으로 여자와 이야기하지 않았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과 예배에 대해 그녀와 오래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신학적인 주제를 두고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내십니다. 그분은 그녀의 마음을 얻으십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그 남자, 수가의 그 남자에게 그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난 그녀는 온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릅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의 이 믿는 이들은 가정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분명히 이 모임에서 그분, 곧 수가의 그 남자, 그녀의 메시아와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이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모여 있는 교회야말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도 반드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여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분이 하필 그녀, 한 여자에게 예배를 설명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침묵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6.2 예수님의 발치에서 – 마르다와 마리아

꽤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눅 10:38-42).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예수께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에게서 배우는 쪽을 택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변호하시며, 그것이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이고 그녀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 학교에는 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르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배울 수 있고 똑같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께서는 그 시대의 관습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래전에 사라진 관습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딤후 2:2), 그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 여자들과 남자들 – 에게 부탁하라고 씁니다. 이것은 이 상황을 잘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침을 그런 사람들,

곧 여제자들과 남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금지와 분명히 모순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별은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마 22:16). 그것은 성별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두 성이 똑같이 아무 차별 없이 예수님께 존중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이니라!** (막 3:33-35)

6.3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교부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3세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만나신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그분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귀신 들림의 속박과 비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분에게 고침받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분을 따랐습니다(눅 8:2-3). 그분은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녀, 한 여자만이 동산에서 이 특별한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직 그녀에게만, 사람이 일찍이 들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말씀을 예수께 듣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 20:17).

이렇게 그녀는 제자들에게 보냄 받은 사람, 여사도가 됩니다. 공식적인 칭호는 아니지만 그녀에게 어울리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이 소식은 한 남자에게,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에게, 신실한 증인인 그녀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도 모임에서 이 만남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7 신부인 교회와 여성들의 섬김

모든 믿는 이,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어린양의 신부입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란히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이루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특권은 전혀 없고, 한 성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결혼은 이런 모습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성이 서로 대하는 모습도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타락은 이 그림을 오래도록 깨뜨려 놓았습니다: 균형이 무너졌고, 이제 남자는 – 물론 예외는 있지만 – 여자를 다스리려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자는 아래에 놓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속되고 뒤로 밀려납니다. 공적인 자리는 남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끌어내려고 나름의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불평등과 긴장과 일방적인 복종이라는 이 죄 많은 틀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편지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바울을 살펴봅시다.

7.1 바울과 그의 여성 동역자들

두세 개의 성경 본문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바울은 **여성의 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본보기이신 예수님처럼, 그는 여자들을 혁명적으로, 곧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는 **여성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 안의 자매들에 대해 쓸 때 그가 보이는 자연스러움은 눈에 띕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도요 선교사인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교에 함께 묶여 있었고, 사슬의 고리처럼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뒷줄의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함으로 두드러졌고, 바울처럼 말씀을 섬겼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세 사람으로 줄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29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적어도 10명이 여자이며, 바울은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남자들의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합니다. 거기서 시작합시다.

7.1.1 뵈뵈 – 여성 집사, 지도자, 편지를 전한 사람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는 뵈뵈로 시작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편지를 로마로 가져갈 신뢰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편지를 읽어 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이 편지에 대해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았기에, 뵈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여러 가정 교회를 찾아가 편지를 읽어 주고, 질문이 있는 곳에서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 있는 가정 교회의 일꾼, 곧 여성 집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어쩌면 그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독일어 번역들을 따르면 바울은 그녀를 돕는 사람, 도움, 버팀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본래 지도자, 앞에 서는 사람(헬라어: prostatis)을 뜻하며, 예를 들어 이 가정 교회에서의 지도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의 가정 교회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뵈뵈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금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구절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읽어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저 단순한 우편배달 일만 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1.2 본이 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부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쩌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고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들일 것입니다. 부부를 부를 때는 늘 남편을 먼저 불렀는데도, 신약은 아내인 브리스가를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먼저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섬김에서 앞장서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남편보다 은사가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한 팀의 동반자로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로 하나가 되어 함께 일했습니다. 각자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브리스가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브리스가가 앞장서서,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행 18:26). 바울에게 직접 배우고,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보낸 많은 시간 동안 묻고 대답하며 훈련받았기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한 여자인 브리스가를 특별히 언급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뒷줄에서 그녀를 뒤에서 받쳐 주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위계가 생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볼로를, 그리고 분명히 다른 많은 사람도 가르쳤는데, 바울이 여자들에게 전반적인 가르침 금지를 내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부는 모든 부부에게 본보기입니다.

7.1.3 유니아 – 존경받는 여사도

바울이 높이 평가하는 또 한 쌍의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라고 불립니다(롬 16:7). 신약의 가장 이른 해석자들인 교부들은 유니아를 깊은 존경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os, 주후 344-407년)는 유니아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큰일이다.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이름이 났다니 –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생각해 보라. 사도라는 칭호에 합당하다고 여겨졌으니, 이 여자의 지혜가 얼마나 컸겠는가.”

남자가 지배하는 교회 세계와 지역 교회 세계는, 사도 바울이 한 여자를 여사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니아를 유니아스, 곧 남자 이름으로 만드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제 이것이 여자 이름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였는지는 열려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한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섬김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부활하신 분을 본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의미에서 사도였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자에 대한 말하기, 가르치기, 지도하기의 금지는 여사도에게는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아마 공개적으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8 자매들에게 침묵 명령이 있는가?

바울 주변에 있던 이 세 여자와 다른 여자들을 보면, 모여 있는 가정 교회, 곧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도 그래야 한다거나 그렇게 실천되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짧은 본문 하나만 빼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34-35의 이 본문입니다:

>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
>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계명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거 있는 의심이 있습니다. 여성 해방이나 페미니즘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근거한 의심입니다.

11장 5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해 말합니다(요엘 2:28 + 사도행전 2:17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모임 안에서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14장의 34-35절이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듯이 모임 밖에서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기도와 예언은 **무엇보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14장에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서 바울에게는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여러 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 12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모두)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
-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형제들(헬라어: adelphoi)이라는 말은 형제자매, 곧 형제들**과** 자매들을 뜻합니다. 남자들에게만 한정할 수 없는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그렇습니다(이 낱말은 고린도전서에 27번 나오며 거의 언제나 형제들**과** 자매들을 뜻합니다).

- 31절: 너희는 다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본문 안의 모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34-35절은 대부분의 독자에게 본문 속의 이물질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먼저 성경 비평이나 잘못된 마음가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순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당한 상식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며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권고를 받는 이 구절들을 보아도, 바울이 여자들의 섬김을 묘사하는 것을 보아도,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침묵 명령을 뜻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에는 모순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뜻을 주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석,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자가 이 모순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고, 그다음에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8.1 예언을 분별하는 일

고린도의 여자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질문이 있었고 아마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 모임에서 너무 자주 끼어들어 질문했거나, 지혜롭지 못한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여기서 복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임이 방해를 받았고, 평화의 하나님께 맞지 않는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말했느냐였을 것입니다.

또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나 모든 남자의 예언적 발언을 분별하는 일(29절)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가 공개적인 비판으로 남편을 망신시키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8.2 34절과 35절은 인용인가?

바울이 여기서 몇몇 고린도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려고 인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 구절들에서 여러 번 한 편지의 내용을 자유롭게 또는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어 있습니다: 6:12-13; 7:1; 8:1, 4; 10:23; 15:12. 모든 인용이 늘 인용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아니며, 인용인지 아닌지는 문맥에서 판단합니다. 그는 고린도에 여자들에게 이런 침묵 명령을 요구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로나 편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침묵 요구는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드는 것은 이상합니다. 침묵 명령도, 복종 명령도 모세의 율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복종과 침묵에 관해서는 구약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창조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삶의 규칙이 아니며,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를 정하는 기준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근거로 삼은 유대인의, 또는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의 해석이나 규칙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인용이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합니다.

이것이 인용이라면, 바울은 36절에서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에 분명하게, 거의 분개하며 반응합니다. 독일어와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또는 “말도 안 된다!” 또는 “절대로 안 된다”, 여자들이 모임에서 잠잠해야 한다니. 그것은 바울의 강력한 개입이요 반박일 것입니다.

8.3 34절과 35절은 나중에 끼워 넣은 것인가?

이 구절들은 낯설게 들리고, 바울에게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사본들에서 이 구절들이 필사자들이 끼워 넣은 것이라는 분명한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의심, 곧 모순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명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본상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있는 의심은, 이 두 구절이 사본들에서 여러 번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한 번은 우리 성경에서 보통 있는 자리, 곧 33절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본들에서는 40절 다음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어떤 코덱스의 여백에 이 구절들을 적었습니다. 그다음 필사자가 이 여백의 메모를 본문 안으로 옮겼는데, 어느 자리에 넣을지는 그가 정했습니다. 그 자리가 늘 같았다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처음의 의심은 4세기의 중요한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본은 신약의 가장 중요한 대형 사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본에는 실제로 이 구절들과 다른 몇 구절이 나중에 끼워 넣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세기의 풀다 사본(Codex Fuldensis)도 두 가지 읽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34절과 35절이 **없는** 읽기가 수정본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두 코덱스(사본)의 원본에는 둘 다 이 구절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바울에게서 온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면 영감된 것도 아니며, 그저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씨 가운데 뿌려져 오늘까지 자라고 있는 가라지처럼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이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다툼과 분열을 가져왔는지 그 영향을 살펴보면, 이 주장이 품은 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빠지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마지막 단락이 다시 앞뒤가 맞고 분명한 생각의 흐름이 생깁니다.

침묵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여자들은 함께 찬송해서도 안 되고(14:15) 아멘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14:16). 그러나 침묵 명령을 그렇게 이해하는 곳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이런 해석에서는 바울조차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분의 모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장과 그 편지와 신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이 해석을 택하고, 그것으로 모든 여자에게 잠잠하라는 의무를 지운 것은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써 그들은 모임에서 많은 영적 풍요를, 아니 어쩌면 주님의 음성까지 빼앗습니다. 자매들도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남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저는 언제나 성경을 성경과 비교하고, 어떤 해석을 뒷받침하고 확인해 주는 평행 본문을 찾으라고 배웠습니다. 여자에 대한 침묵 명령을 담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전제하거나, 명령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합해 보면, 있는 것은 여자들의 참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짐작하게 하는 말씀들뿐입니다. 침묵 명령은 단 하나의 본문입니다. 게다가 특이한 본문이어서, 부적절한 말하기를 가리키고 그 때문에 금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허락 없이 끼워 넣은 것이거나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의 지시가 아니라 정반대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자매들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임에서 평생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금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제를 꺼내면 지극히 감정적이고 흥분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고집하는 남자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그들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처럼 광범위하고 엄격하며 설명할 수 없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한 지시를 단 두 문장을 근거로 주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처지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낯설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은 덕을 세우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한 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와의 딸들이 잠잠하고 입을 다물도록 하는 데 누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동산에서 여자를 공격했던 옛 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 편에 서십니다. 그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자매들이 예배에서 말씀이나 찬양으로, 설교나 삶의 간증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페미니즘이나 세속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이 여자를 공적인 자리에서 배제하려 하고 그로써 차별하는 세속의 법을 옮긴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면, 이 문제에서 세속적인 쪽은 누구입니까?

여자들이 1세기나 2세기의 세속적 명령 때문에, 그것도 속임수로 성경 속에 들어온 명령 때문에 오늘도 모임에서 잠잠히 있다면, 그것은 비극적인 추문입니다!

9 자매들에게 가르침 금지가 있는가?

바울과 예수께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여자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배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 속하며(고전 14:26), 브리스가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에 속하고(행 18:26),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딛 2:3).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배운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딤후 2:2). 가르치는 영적 은사도 남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롬 12:7).

예수께서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말하기 금지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가르쳐서는 안 되며 지도하거나 권위를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뜻으로 그대로 이해되는 성경 말씀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구절들이 예배에만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예배에서의 침묵 명령이 있다면 이 점에서 대부분이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거기서 가르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본문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에베소의 역사적이고 문제 많은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편지, 곧 이야기의 한쪽 면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나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 결론을 끌어내어 모든 시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계명으로 내세우기 전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인 것입니다. 반면에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8-15절의 단락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11-14절로 한정합니다. 이 장의 끝에는 단락 전체를 뜻에 맞게 옮긴 글이 이어집니다.

> [디모데전서 2:11-14] 여자는 일체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자가 배워야 한다는 문장은 이 단락에서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된 문장이며, 게다가 혁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여자에게 교육은 닿을 수 없는 것이었고, 바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시들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특정한 한 여자(“한” 여자)이거나 한 무리의 여자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어설픈 지식이나 거짓 가르침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가르치거나, 남편을 가르치려 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한다는 말은 영적인 지도도, 가르치는 권위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낱말은 신약에 단 한 번 나오며, 당시의 일상 언어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뜻했습니다. 바울이 권세나 권위를 말할 때 쓰는 다른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낱말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탈선, 곧 부정적이고 위협적이며 심지어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합이 아니라 잘못된 조합이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론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이 말씀들에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권위는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가르치는 은사에서, 그리고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동의와 지지에서 나옵니다.**

더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가 …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자가 자기 숙제를 마치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로잡음을 촉구하는 것이 이 편지 전체를 쓴 이유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 구체적인 인물과 거짓 가르침을 다룹니다(딤전 1:3-6; 1:19-20; 4:1-10; 5:13-16; 6:3-10; 6:20-21).

이제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짧게 듭니다. 비교와 예로서입니다. 아담의 우선권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그리고 그로써 모든 여자의 더 큰 연약함이나 유혹에 빠지기 쉬움을 가르침 금지의 이유로 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는 사실은 그의 지도적 역할과 그로써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를 근거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실제로 일어난 순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denn)이라는 작은 낱말은 원문에서 때로는 이유를 대는 말의 시작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며, 다른 곳에서처럼 그저 구약에서 가져온 비교와 그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를 드는지는 받는 사람들만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광범위한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적 가르침들에서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이교적인 요소들, 특히 영지주의(6:20)와 뒤섞였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하와를 첫 사람으로, 그리고 아담에게 영혼을 불어넣은 여성적 힘으로 높였습니다. 어쩌면 순서를 강조하는 이 언급은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의 도시 생활을 지배하던 아르테미스(아데미) 숭배도 그에

딸린 신화와 가르침과 관습과 함께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19장에서 생생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 다음에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서, 그리고 아담을 위해, 모든 것을 그와 나누는 도움이 되고 동등한 동반자가 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뱀이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녀가 속은 것은, 그녀가 이 상황을 혼자서 이겨 내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존재를 위협하는 위험 속에서 함께 이 도전에 맞서려고 동반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의 여자들은, 그리고 결국 모든 여자는 자기 동반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며 필요하다면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있기 전에 금지된 열매에 관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와는 그것을 남편에게서 들어야 했습니다. 하와가 속은 것은 어쩌면 그녀가 충분히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몇몇 여자에게, 배우고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들은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남자들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들어 알았고, 다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그의 죄는 미혹이 아니라 눈을 뜬 채로 짓는 죄, 곧 다 알고 동의하면서 짓는 죄였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1:3부터), 왜 2:12를 여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펴는 것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여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펴는 것에 대한 금지로 읽습니까?

부적절한 방식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은 에베소의 한 여자 또는 여러 여자의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바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배운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2:8-15를 풀어 옮긴 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본문을 간추려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여, 에베소에서 몇몇 남자와 몇몇 여자,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바로잡으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신화와 거짓 가르침을 두고 다투는 대신에 말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과 관계로 이끕니다. 다툼과 폭력에서 깨끗하고, 높이 들고, 열려 있고, 받아들이는 손으로, 그들은 함께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여자들이, 특히 부유한 여자들이, 어디에 나타나든 어디에서 눈에 띄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앞지르려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끄는 그들의 치장은, 공들이고 눈에 띄는 머리 모양이나 금과 진주 장신구나 비싸고 화려한 옷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치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하기까지 하는 것, 곧 선한 행실입니다.

여자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알고자 하는 열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 여자들 가운데 몇몇에게는 이 모든 거짓 신화와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을 저는 지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 위에 올라서서 제멋대로 그를 지배하고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 남편이나 교회의 남자들이 건전한 교훈을 설명해 줄 때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들이 집집마다 신화를 퍼뜨리면 이 무지가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이것에 꼭 들어맞는 예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고, 하와를 가르쳐야 했던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속고 미혹되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녀는 자기 동반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기꺼이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하와처럼 속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의 몇몇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뒤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남자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지켜 주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미혹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해산의 큰 위험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에베소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인 부부로서 함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결혼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은 성적으로 자기를 절제해야 하며, 너무 잦은 임신이 아내에게 위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0 만인 제사장직

낙원의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삽니다. 경작하다와 지키다는 나중에 제사장의 섬김에 쓰인 낱말들입니다(창세기 2:15).

에덴의 낙원 동산은 성전의 지성소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새롭고 더 나은 에덴, 곧 새 땅은 온 세상을 덮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온 땅이 낙원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그림인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계 21장). 그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모양입니다. 새 땅에는 여자들과 남자들, 왕들과 여왕들, 제사장들과 여제사장들이 살 것입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위계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새 창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계는 옛 창조, 타락한 창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미래가 이미 지금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위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뿐입니다.**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천에는 그것이 전혀 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톨릭교회조차도 믿는 이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진리가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모든 믿는 이가 제사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두 성이 예배에서 같은 역할이나 섬김을 맡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실천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복입니다. 제사장직과 그에 딸린 제사 섬김의 본은 구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예배를 이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 예배자로서 함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믿는 이들의 모임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 상, 곧 영적인 제단에서 찬송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모임을 떠올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 안에서 이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옛 언약에서는 남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야 했고,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했고 몸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제사장의 일은 백정의 일처럼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근동의 더위 속에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는 일은 땀을 쏟게 하는 일이었고, 평균적으로 그저 여자보다 힘이 센 남자들이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배를 위한 제사장 일은 오늘날 더 이상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남성) 레위 제사장직이 생겨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표시라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금송아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뒤에야 비로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출 32장). 그때 레위인들만 그것에 맞서 일어났습니다(26-29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 품으신 뜻은 그들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출 19:6). 그 비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계 1:6; 히 13:15).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자들과 남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남자들의 삶만이 아니라 남자들과 여자들의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 삶 전체가 제사장의 섬김입니다(롬 12:1-2).

11 자매들이 여성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자매들에게 전반적인 침묵 명령도 없고 전반적인 가르침 금지도 없다면, 그들이 여성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들에는 공식적인 장로들이 있어서, 교인이라면 누구나 누가 장로인지 압니다. 장로들의 섬김에 대해서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 양 떼를 지키고 이끄는 일, 돌보는 일, 감독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지 않는 한, 누구나 자기 시대의 자녀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때로는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신약의 편지들이 가부장제가 사회의 기본 질서였던 시대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자를 남자보다 능력이 모자라고 더 열등하다고 여겼고, 그 결과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바로 이런 차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바울이 시대정신에 맞추지 않으시고,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진 존엄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은, 우리가 아는 한, 아마 남자 장로들만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거나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의 뵈뵈(롬 16:1)는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가능했던 하나의 예외일 뿐입니다. 지도하는 일은 그 자체로 남자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자가 더 나은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대규모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그것은 여자에게 정신적이거나 지적인 한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나 신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디모데전서 3:1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 미쁘다 이 말이여, 만일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도다

이 구절은 한 여자의 거짓 가르침과 지배에 관한 단락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새 단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8-15의 마무리입니다.** 원래의 문서에는 단락 구분도, 절

번호도, 소제목도 없었습니다. 3장 1절은 2:11-15의 여자 또는 여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남자가 그런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나 여자들이 그런 직분을 사모한다면, 이라는 뜻일 수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중성이며,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뒤에도 고압적으로 가르치는 권한을 혼자 움켜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감독 또는 장로의 섬김에 나아가거나 그 일로 부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성숙함과 능력을 갖추면 이 섬김이 그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남자가 없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에게 문을 열고 있으며, 그런 여자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동역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물론 남자들도 이 섬김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한 사람뿐이어야 합니다. 여성 장로가 되려는 여자들에게도 같은 것이 해당되었습니다**. 대명사는 목록의 처음부터 중성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당시에 부부간의 신실함, 곧 일부일처를 가리키는 관용구였으며, 남자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요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pater familias(가장)로서 집을 다스렸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였고, 그것은 여자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딤전 5:14 – 집안을 다스리는 일).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이 모든 자질을 여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이 자격 요건들도, 감독의 섬김 자체도 순전히 남자의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섬김에 대해서는 논쟁이 덜합니다: 11절은 여자들도 여성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자들을 교회 지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엡 5:29). 안타깝게도 자매들을 지도자 모임과 "형제 모임"에서 배제한 결과,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남자들이 교회 지도의 자리에 오르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여기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다스리고 앞에서 이끄는 은사를 주십니다(고전 12:28; 롬 12:8). 그런 여자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세워 주며, 그런 섬김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시작합시다. 첫 번째 쉬운 걸음은 지도자 모임을 남자 지도자들의 아내들과 함께 여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의 지도를 남자들만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왜 지도의 은사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은 이런 제한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까? 영적 은사에 관한 가르침은 새 언약에서 교회 지도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자기의 새로운 운동의 창립 사도로 택하셨다는 사실도 이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고, 자유인이었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 언약이 시작되기 전, 과도기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열두 족장을 본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시대에 그 뒤를 이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이나 종일 수 있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열두 제자가 유대인이고 자유인이었다는 것은 그런 지도자들에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열두 사도가 남자였다는 것도 나중의 지도자들이 여자일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지도하는 섬김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사도들에게 중요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여자를 배제한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드는 일이며 창조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는 일이라는 반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담 곁에 세워진 것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위계적이거나 지위상의 위아래 없이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채워 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분명하고 눈에 띕니다. 평등주의적(egalitär)이라는 말, 곧 남자와 여자의 같음을 뜻하는 말은 이 토론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 됨이 여자 됨과 다른 점, 또 그 반대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예 막는 비성경적인 서열의 차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활동을 좁히는 것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12 머리 덮개 – 오늘도 필요한가?

이른바 머리 덮개는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1:2-16에만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이것은 분명히 논란이 많은 주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이에 대해 쓴 모든 문장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 설명은 많은 설명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여전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사랑하는 자매님, 자매님이 머리를 덮고 계신다면 그 이유를 이 단락에서 스스로 한번 분명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매님은 왜, 어디서, 언제 머리를 덮으십니까(자매님께 해당된다면)?**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인 이 바울의 본문을 적용하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는 일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도 구속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구속력이 있는가?

이 단락은 흔히 이렇게 설명됩니다: 남자 또는 남편은 여자의 머리이며 창조에 따른 지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여자 또는 아내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 곧 머리 덮개(오늘날로 말하면 머릿수건, 모자, 너울 등)를 씀으로써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머리를 덮는 데 어떤 옷가지를 뜻하는지는 열려 있습니다. 아마 필요할 때 겉옷의 긴 자락을 머리에 둘러 덮어썼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머리 덮개가 어디서 요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입니까, 예배 밖에서입니까? 문제는 자매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예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의 장(8장)에서 저는 이것이 예배, 곧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여자들이, 또는 그 가운데 몇몇이 더 이상 머리를 덮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자들에게 머리를 덮으라고 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절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그랬거나, 아니면 부도덕한 동기로, 곧 다른 때에는 볼 수 없거나 거의 볼 수 없던 교회 여자들과 그들의 머리카락을 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을 격려하며, 모든 여자에게 머리를 덮을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10절).** 그러나 누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는 이 질문에 꼭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그리스의 고린도와 로마 제국에서 머리 덮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언제나 머리 덮개를 썼습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들이 넘볼 수 없는 결혼한 여자로서 그들의 존엄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머리 덮개를 쓰지 않던 창녀들과 여종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종들에게는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머리 덮개, 아마 너울 같은 겉옷은 한편으로는 보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충실함의 표시였습니다. 이 덮개로 표현된 것은 사회적 존엄이었습니다. **머리 덮개와 관련해서 복종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문화에서 여자들은 어차피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 덮개는 복종의 표시가 아니라 소속의 표시, 곧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복종은 이 고린도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당시 거의 모든 곳에서 좋은 사회적 관습이었던 것은 오늘날 이슬람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덮개 같은 상징은 사회와 그 문화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머리 덮개 문제를 정리하려고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 **주의해 보십시오, 원문에는 머리 위에 권위나 권세의 표(곧 머리 덮개)를 둔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르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지니라.**

이 구절은, 이제 머리 덮개가 필요 없다는 요구가 나와 있었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머리 덮개를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교회의 모든 여자가 그렇다. 믿음에 이른 미혼 여자들, 해방된 여자들, 여종들, 창녀들도 그렇다. 바울은 모든 여자에게 교회에서, 곧 예배에서 머리를 덮을 존엄을 준다. 언젠가 천사들을 판단할 만한 자격을 받은 사람이라면(고전 6:3), 이 문제는 분명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바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던지는 질문에도 대답합니다: 각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남편이나 교회 지도부의 남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에서의 머리 덮개는 바깥사람들에게 오히려 당혹감을 줍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머리 덮개가 가져온 효과와 정반대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머리 덮개는 말 그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문화와 시대에 따른 조정과 달리, 이 본문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머리는 우두머리나 지도자나 위에 있는 권위라는 뜻이 아니라, 근원과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남자의 존귀한 근원이시며(그의 창조주로서), 남자(아담)는 머리로서 여자(하와)의 존귀한 근원이고, 하나님은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근원이십니다(그분의 성육신에서).
- **남자들과 여자들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 각 사람은 자기 존재의 원천이요 근원인 존귀한 머리를 공경합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치와 불명예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알아볼 수 있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존하며, 위계나 가치와 서열의 차이 없이 서로를 보완합니다.
-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앞에 섭니다. 예배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 바울은 이 성별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묶어, 동등한 지위를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모여 있는 교회, 곧 예배에서도 유효합니다:
-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11:12]

이 복잡한 단락에는 물론 단락의 한가운데 있는 이 10절(또는 12절) 하나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에서처럼, 제가 간추려 설명하는 방식으로 단락 전체를 풀어 옮긴 글이 이어집니다:

고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근원, 곧 머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아담이,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남자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여러분은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빚어져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머리, 그녀는 몸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근원이며, 그녀도 아내로서 그에게 속해 있어 그를 돕고 보완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봅니다.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곧 자기와 동등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고린도의 어떤 남자가 모임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머리를 덮고 있다면, 그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제사할 때 머리를 덮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덮지 않음으로써 남자는 겸손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머리를 덮지 않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 곧 자기 머리의 명예를 떨어뜨립니다. 풀어 헤친 머리카락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자들이 머리를 덮을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다면, 그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머리를 덮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민 여자처럼 여겨지고, 몸을 파는 여자나 성적인 만남을 찾는 여자와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공적인 자리에서 가리거나 덮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그녀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아예 밀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요구로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덮는 일반적인 관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거부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녀는 그 밖에도 남자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그에게서 지음 받았고 그와 하나인 그 남편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가 그녀에게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서, 그의 옆구리에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의 영광인 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가 혼자였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이처럼 큰 가치를 지니고 남자에게 이처럼 큰 복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머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덮을지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남편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녀에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 (또는 쓰라고)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언젠가 천사들까지 판단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의 독립성과 결정의 자유 안에서도, 자기가 남편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자도 여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와 몸의 하나 됨 안에서 그들은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보완하며 행동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사람 부부의 창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로 이끌려 와서 다시 그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을 것입니다. 둘 다 동등한 존엄과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서로 다름 속에서 완전한 보완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이 나온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가리지도 덮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단정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와 로마 제국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연법칙과 같은 관습과 풍속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가 일반적인 관습을 거슬러 머리를 길게 기르면, 그것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도 여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여자들의 긴 머리카락은 그들의 영광이요 자연스러운 장식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긴 머리카락은 남자의 영광이 되도록 그녀에게 장식하는 너울이나 겉옷처럼 주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그토록 탐스러워 보이는 이 장식을 그녀는 모임에서 덮어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덮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겸손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모임은 이 영광으로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누군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하려 하고 머리 덮개의 이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그런 일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려는 것처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덮개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하고 존귀하며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을 지키십시오.

13 머리인 남자 – 일방적인 복종인가?

바울과 베드로는 일곱 번이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했던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고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내(들), 자녀들, 종들, 그리고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분명한 위계를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제국과 고대 사회에 안정과 질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이상은 남자와 여자를 위계 없는 동등한 동반자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미리 내다본 대로(창 3:16)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바로 이런 사회 구조와 마주칩니다.

왜 복종이 그렇게 강조되며, 그것은 오늘도 똑같이 유효합니까? 많은 여자가 자기 역할을 견디기 힘들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으로 겪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처지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남편보다 훨씬 어렸고, 남편의 소유였으며, 목소리가 없었고, 자유가 거의 없었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연애결혼은 없었습니다! 복종은 기쁨이라기보다 짐이요 강요였습니다. 이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있는 관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살며, 주께 하듯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자유와, 복음이 여자로서 그들에게 되돌려 준 존엄이 남편에게 맞서 일어날 계기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태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당시 사회에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집의 주인인 남편들은 이 고대 세계에서 여자의 머리로 나타납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성경의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롭게 정의됩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남자들에게 잘 다스리라거나 지혜롭게 지배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 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새로운 정의를 얻습니다(엡 5:21-33): 머리, 곧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며,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아내를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모여 있는 가정 교회에서 낭독될 때, 고대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남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혁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그리고 자녀와 종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집의 가부장적 구조를 일종의 "사랑의 가부장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신 것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사회 구조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복음에 더할 수 없이 큰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이 굳은 구조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허물어지고, 누그러지고, 바뀌어 갑니다.

회심한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들의 말씀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9세기까지 그런 일도 했습니다. 고대에 노예 제도는 사회의 확고하고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로서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심한 종은 이제 주님을 섬기듯 마음으로 섬기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종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형제가 되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자유인도 종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구성(남편, 아내, 자녀, 종)을 지닌 고대의 집의 질서를 다루었다는 것은, 이 지시들이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차이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 구조에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고, pater familias, 곧 다스리는 가장이 있는 고대의 집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도 많고, 혼자 사는 가구와 양로원도 많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에 맞는 사도들의 지시도 없습니다.

바울은 집의 지배자가 pater familias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이 하늘의 주님께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시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널리 퍼진 견해는 여자의 복종이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좋은 질서는 타락 이전의 질서입니다. 위계가 없고, 남자의 머리 됨이 없고, 여자의 일방적인 복종이 없는 질서입니다. 타락 이후에야 비로소, 남자가 부당하게 아무 위임도 없이 여자를 다스리는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언제나 근본적으로 나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것이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실제로 그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종과 사랑에 관한 이 지시들이 그렇게 실천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에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가 스스로 제안하는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피차 복종(엡 5:21)에 대해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천되는 예로 부부 관계를 듭니다. **실제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3:7에서 여자들에게 복종을 권하는 3:1을 가리키며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단단히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벧전 5:5).**

오늘날의 결혼은 고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약해진 형태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종의 근거를 잘못 이해한 창조 질서에 둔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 돌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곧 믿는 형제자매 사이의 복종으로, 믿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복종도 포함합니다)은 노예 같은 것도,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충실하며 사랑이 담긴 존중이요, 협력이요, 지원입니다. 겸손과 온유처럼 복종도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 자신에게서 받은 인상이고 다른 남자들에게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권고를 일방적인 복종으로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 안에서, 또 어느 정도는 사회 안에서 길들여진 대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보여 줍니다.

왜 우리는 언뜻 보기에 여자들이 제한을 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면 의문을 제기했을 일을,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도록 맡기고, 예수님과 바울의 학교에 들어갑시다.

14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성 역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28입니다:

> [갈라디아서 3:26-28]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남성이나 여성)가 없나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며, 그 구원이 여기 열거된 모든 민족적, 종교적 집단과 마지막으로 두 성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관한 것이지, 타락한 피조 세계 속의 우리의 실제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차이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의 처음에 무엇을 바로 다룹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다른 상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28이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로 남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로 본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큰 것이 더해집니다: 아들의 지위입니다. 바울은 고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에는 특권과 존엄, 권리와 상속이 따랐습니다. 딸들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믿는 이들에게,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똑같이 줍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원, 그리고 옛 언약에서 구원이라고 이해하던 것이 여기 언급된 집단들에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헬라인은 할례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개종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듯이 자유인과 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 곧 인간관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이 28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두가 같은 존엄을 지니고, 죄인으로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이 세 쌍은 얼마든지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자녀와 부모,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이해할 만하게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의 가족 안에서 모두 평등하고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모든 차이는 뒤로 물러나며,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세 집단을 드는 것은, 그들이 구속받지 못한 세상에서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차이들이 다툼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례가 없으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은 착취당하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가치도 없었고, 목소리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도 소유물이었고 남자보다 열등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목소리가 없었고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셨던 방식으로 서로 만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회적, 민족적, 위계적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형제와 자매만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차이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은 존엄을 지닌다면, 둘 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섬김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섬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1:27의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는 성별이 없는 존재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들이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눈에 보이게 여자로 나타나야 하고 남자들은 남자로 보여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바울은 성별을 일부러 감추거나 심지어 지워 버리던 이교 문화와 예배 관습의 여러 면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질서는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질서는 처음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곧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뒤집어엎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며, 수천 년 묵은 죄 많은 구조를 풀어 버리고 문화와 민족 전체를 바꾸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예 제도의 폐지,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로운 권리,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도 이 바울의 말씀에 그 뿌리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에 그 효력을 펼쳐 왔습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해 그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이 역할들에 대해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자매들이 차별이나 일방적인 복종 없이, 그들이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갖춘 모든 섬김을 자유롭게 맡을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할당제가 아니라, 서로를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28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롬 2:11; 약 2:1).

15 우리의 죄 고백

“남자다운 형제들” –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6:13에서 바울은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남자답게, 또는 대장부답게 강건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여성다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겁먹은 행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남자다움을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죄 고백을 용기 내어 입 밖에 내고, 그에 맞는 행동을 뒤따르게 함으로써 남자다워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해석의 주도권을 우리 것으로 주장했고, 그와 함께 행동의 주도권도 차지했으며, 그것으로 여자들을 교회의 섬김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반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Jahwe Elohim),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주여, 우리가 자매들을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마주 보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사람으로 여겨 생각하고 요구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여자들이 잠잠해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당하게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일과 문제들을 여러분 없이 의논하고 결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이기적이고 지배하려 드는,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비겁했던 곳에서, 우리가 남자답게 버티고 앞장서야 했고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히 기대했던 곳에서 여러분을 앞세우고 여러분에게 기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일과 여러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일로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차별하는 태도와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자유로우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 우리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늘 우리를 도와온 것처럼 말입니다.

16 맺으며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래전에 “여성 문제”를 정리하고 자매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깨달음이 아주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매들의 섬김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깨달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위계적 관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곳에서 정리되었고, 저는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학적 연구에서 아주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주제들이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의 문제를 크게 뒤흔드는 주제들이 오늘날 논의되고 있고, 사회의 인식 속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섹슈얼리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하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쳐도 되느냐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적실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참으로 시급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이상 귀 기울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급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사람을 성경과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 여기서는 성의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눈앞에 또 하나의 바벨탑 쌓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그림에 들어맞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살아 보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역할 모델을 찾고 있는,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사회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됩시다. 상대 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으로 두드러지는 본보기가 됩시다. 그때에야, 오직 그때에야 오늘의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브리엘레 징어(Gabriele Singer)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함께하면 더 낫다!

더불어 하면 더 낫다!

서로 어울리면 더 낫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봅니다. 남자의 관여 없이 한 여자에게 잉태되신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한 여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 배우는 것을 그분은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여자가 자기에게 중요한 제사장적 섬김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녀에게서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고 무덤에 가장 먼저 갔습니다. 일곱 마디 ‘가상칠언’ 가운데 다섯 마디는 오직 여자들만이 증언하고 전했으며(로마 군인들은 빼고),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들은 오직 여자들만이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일부러 여자들을 만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분의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의 완전한 평등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을 단번에 분명히 하시려고 그분이 이보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크리스티안 베제(Christian Beese)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아주 오래되고 단단하고 깊이 뿌리내려 사방으로 번지는 잡초처럼, 그리스도인 남자들의 여성관은 처음부터 그들의 주변 세계의 메아리였고, 안타깝게도 그들 마음의 메아리이기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노골적으로든 온건하게든,

심지어 사랑이 담긴 방식으로 실천되었든, 그래도 성경적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리로 돌아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Hans-Jörg Ronsdorf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성 친화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세계와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와의 관계와 우리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그려 보아야 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구 중심의 우주 이해에서 태양 중심의 우주 이해로 옮겨 가야 했던 것만큼이나 어려운 변화이다.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처음 제안한 과학자들은 파문당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끌리고 지배당하는 것과 제도와 기관을 남자가 조직하고 이끄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주의적 세계관은 여자와 남자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는 세계관이다. 그들은 힘을 나누고, 서로의 은사를 알아보며, 북돋우고, 풀어놓는다. 그리고 서로를 같은 존중과 같은 존엄으로 대한다." 바버라 리드(Barbara Reid)

"복음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여자를 미성년자처럼 다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가부장적 역할 이해가 불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쳤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것이 결코 비열한 동기로, 권력 다툼의 정신으로, 더구나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흔히 성경에 대한 비극적인 오해 때문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존엄을 해치는 전통들에 용기 있게 의문을 던지고 그것들에서 돌아설 때이다. 그래서 여자들도 자기 발을 '넓은 곳'에 둘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마침내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르트무트 크뤼거(Hartmut Krüger)

성경 본문의 문화적 배경을 지워 버린다고 해서 본문의 문자를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문자는 흔히, 아니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시대의 문화적 확신을 비추는 영사막이 된다. 많은 복음주의자에게 영원한 성경의 진리로 선포된 것은 사실 19세기와 20세기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섬김에서 여자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애쓰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페미니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훨씬 더 광범위한 요구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20세기까지 있었던 역할을 서로 바꾸는 것, 또는 성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문제가 된다. 수십 년 동안 교리적 신조나 확신을 관철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 왔다면, 논란이 되는 질문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법이라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토르스텐 디츠(Thorsten Dietz)

17 저자의 다른 책들

아래의 책들은 모두 독일어로 출간되었습니다(독일어).

Und die Toten leben doch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Bielefeld, 1992

Seitenwechsel – Von Adam zu Christus (편을 바꾸다 –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Bielefeld, 2011

Entrückung, Himmel, Ewigkeit – Ein neuer Blick auf alte Themen (휴거, 하늘, 영원 – 오래된 주제를 새롭게 보기), Nürnberg, 2015

Gottes Lamm, Golgota und die Ewigkeit (하나님의 어린양 – 골고다와 영원), Wuppertal, 2015

Fantastische Himmelwelt, Lehre und Leben der Himmelwelt im Epheserbrief (환상적인 하늘 세계 –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늘 세계의 가르침과 삶), Nürnberg, 2016

Gott spricht, Eine erklärende Übertragung der allgemeinen Briefe und der Offenbarung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풀어 옮긴 번역), Sulzberg, 2017

Ephes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Sulzberg, 2018

Gods good Gospel, Gottes gutes Evangelium (하나님의 좋은 복음), Sulzberg, 2019

Marku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마가복음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Sulzberg, 2019

Galat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Sulzberg, 2020

Die Briefe des Johanne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요한 서신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Sulzberg, 2020

Frauen, vergebt uns! – Die Rolle von Frau und Mann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 여성과 남성의 역할), Sulzberg, 2020

Ein König voller Pracht – Die gute Botschaft von Jesus, dem Messias (영광이 가득한 왕 – 메시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Augsburg, 2022